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2면

"새로운 문화예술플랫폼 구축의 1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음 6월 11일) 제28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농번기 인력 부족 대책 절실"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최영일 도의원,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 중·장기 마련을 인건비·산재보험 등 14개 시군과 협의 예산 반영해야"

계절성을 지닌 농작업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활발한 5~6월, 9~10월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사진) 의원은 19일 제3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들의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 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내 농가들이 계절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2021년 기준 월 182만2,480원의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비용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영일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은 계절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올해 도내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 681명 중 10%도 안 된 41명만이 도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자, 외국인계절노동자(이하 계절노동자)를 적극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 투입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겨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여파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지 않고, 또 이들이 입국해도 2주간의 자가격리로 인한 임금 제외, 격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특히, 운영계획 등의 관리감독과 절차의 책임이 각 지자체에 있지만 책임이라는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지자체들이 계절노동자 도입을 꺼려하면서 신청·고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북도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은 특히, "전북도가 '삼락농정' 정책을 내세운 만큼, 주도적으로 농촌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이 농도인 만큼,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불투명한 미래를 몸으로 겪고 있고,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내 지역과 함께 합의·협치를 뛰어 넘어 합치의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38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19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도내 고3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152개교 1만7134명… 접종시 학생증 지참해야

도교육청 "고3 외 수능 응시생은 내달 접종 예정"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청소년 접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전북 지역은 133개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두 152개교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이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인가 대안학교,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대상자는 총 1만7,810명이다. 이 중 접종 희망자는 1만7,134명(96.2%)이다.

이와 함께 접종 대상 교직원은 재직, 휴직 및 파견자 등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다.

이들의 접종은 전주 덕진.완산센터 등 도내 15군데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 1차 접종은 19일부터 30일까지며, 2차 접종은 3주 후인 8월 9~20일 진행된다.

특히, 접종 받는 학생은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을 지참하고 센터에 가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접종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또는 단축수업이 가능하다"며, "접종 후 2일 간은 인정 결석처리되며, 3일 이후 부터는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질병 결석 처리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3 학생 외 수능 응시생은 9월 모의평가 신청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접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인 접종 준비도 순항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50세~54세 모더나 백신 사전예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은 53~54세, 20일엔 50~52세만 예약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김천 철도, 전북·경북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을"

두세훈 도의원, 5분 발언서 "사전타당성 조사 준비 타당성 인정 대안노선 발굴" 주장

"수출입물동량 신속처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함께 대선공약사업 반영 나서야"

전주~김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경북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안노선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린 만큼, 우선 전북과 경북이 함께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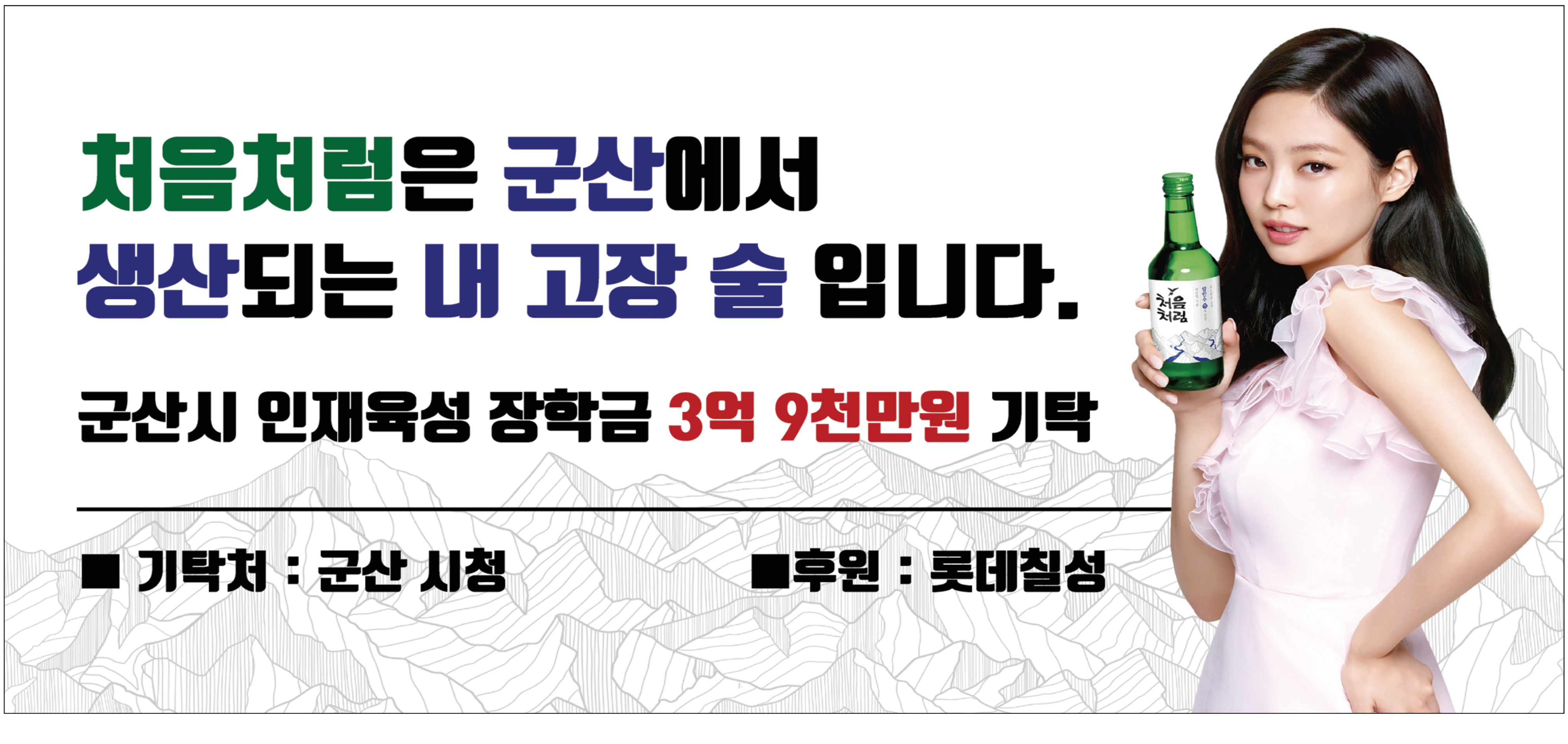
두 의원은 "그동안 전주~김천 철도사업을 제4차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전북도가 60회 넘게 중앙부처나 국회, 청와대 등을 방문하면서도 경북도와 함께 부처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북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김천 간 동서화합철도 추진을 위한 전북·경북 법도민 서명운동도 실시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은 고속철도 도달 최소 1시간 30분 실현을 목표로 산악지역을 제외한 소외구간 모두 철도망이 구축된 프랑스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철도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동서 간 연결 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주~김천 철도 노선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2045년 기준 매일 약 8,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약 9,500톤의 화물이 수송될 것으로 예측돼, 여객 및 물류수송 역할에서의 사업 추진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두세훈 의원은 "전북-경북 공동협의체를 통해 2022년 본예산에 전주~김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드시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경제성·환경성·지역균형발전성을 분석하는 등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안노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호·영남 정치권과 협력해 전주~김천 철도사업을 대선공약사업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수출입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또한 대선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